

2700억 기업도시 진입로 공정 입찰 총력

〈영암 삼호읍~해남 산이면 10.83km〉

전남도, 최근 3년간 설계심사 참여 외부 전문가 제외

심의위원 선정 당일엔 분과위원 공개 사전접촉 방지

전남도가 공사비 2697억원에 달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의 설계심사에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설계심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을 제외시키는 등 총력 태세를 갖췄다.

전남도는 11일 “탄기 입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비리 가능성을 차단해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자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미 오전에 구성된 분과위원 가운데 참여기업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은 제적 대상이 있는지 검토를 거쳐 13일 위촉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수는 과거 12~14명보다 많은 20명으로 늘려 특

정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제도상 보완은 물론 발주부서, 심의부서, 도 감사관실, 전남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상시감찰단을 운영해 비리 적발 시 참여업체 감점 및 고발 조치, 외부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의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심의위원의 모집단이 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최근 2012년부터 3년간 설계심사에 참여한 30여명을 제외한 69명의 외부 위원 가운데 24명, 자격을 갖춘 공무원 31명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26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했다. 참여업체와 분과위원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

위원을 선정하는 당일 오전 분과위원을 선정 및 공개하기로 했다. 이 50명 가운데 소위원장을 맡는 지역계획과장을 제외한 외부위원 9명과 공무원 10명은 참여업체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외부 위원 자격은 기존 4년제 대학 정교수 위주에서 2~4년제 모든 대학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까지 확대했다.

전남도는 업체와 심의위원과의 대면 접촉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탄기마당도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장소도 사전에 공지하고 심의과정은 모니터로 생중계하는 등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갖가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영암 삼호읍(국도 2호선)에서 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선) 10.83km를 연결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의 총사업비는 3138

억원으로 토지보상비, 감리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1공구(5.4km) 1675억원과 2공구(4.43km) 1022억원으로, 2697억원이다.

1공구에는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이, 2공구는 금호건설과 금광기업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1공구는 설계평가 65%, 가격평가 35%, 2공구는 설계평가 55%, 가격평가 45%가 각각 반영된다.

전남도는 오는 6월 4~5일 설계심의를 한 뒤 이미 업체들이 적어낸 가격평가를 합산해 최종 시공사를 발표한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법과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망라해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전에 심의위원들을 선정하고 전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U대회 ‘시민서포터즈 국가별 단장’ 위촉

선수·임원 환영, 만찬 제공

박광태 전 시장 추진위원장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참가국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서포터즈 국가별 단장’을 위촉했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민 서포터즈 국가별 단장 위촉식을 하고 광주국제유호선협회 국가·도시별 회장 101명을 111개국 단장으로 위촉했다.

시민 서포터즈 국가별 단장은 광주U대회 참가국 선수와 임원 등에게 대회 전 환영 메시지 전달, 환영·환송 행사 참석, 지역 문화체험과 관광 안내, 오·만찬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대회 종료 후 참가 선수단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경기 뒤 관리를 통해 국제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단, 관광객 대부분이 ‘아름다운 사람들 광주’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므로 후한 인심, 맛있는 음식, 멋진 풍광이 갖춰진 매력적인 도시로 기억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시민 서포터즈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3선의 국회의원과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역임했으며, 광주U대회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9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광주가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주제어·엠블럼 선포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해협 8개 시·도·현 미세먼지 대처 머리 맞댄다

13일 순천시 기술교류회의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남도는 11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순천 에코그라운드호텔에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환경기술교류사업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교류사업 회의는 한국의 전남·부산·경남·제주, 일본의 나가사키·사가·후쿠오카·야마구치 등 8개 시·도·현 실무자들이 참가해 양국 환경 문제의 공동 관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동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에 관한 고농도 시기의 광역 분포 특성조사’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각 시·도·현 실무자들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연구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기초자료 확

용과 대응방안 등을 협의한다. 또 2016년 이후 차기 공동연구사업 선정을 위해 한국측이 제시한 ‘기후역 수질 특성 및 개선 연구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토의할 계획이다.

한일 환경기술교류 실무회의의 참가자들은 순천만 정원박람회 등 자연환경 시설도 체험할 예정이다.

천제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시기에 맞춰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이 공동 연구한 과제가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해협 8개 시·도·현 환경기술교류회의는 양국 환경문제의 공동 관심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환경정책·기술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삼학도 크루즈부두 건설 해 달라”

목포상의, 정부에 건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도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사진)가 최근 해양수산부에 삼학도 크루즈부두 건설과 국적 크루즈선 취항,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을 취항시키고 올해 국적선사 1곳

이상을 발족해 내년 상반기 처녀 취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일보 8일자 5면〉 목포상의는 건의서에서 “전남 서남권 대표항만인 목포항은 중국과 인접성, 도로·철도·항만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등 뛰어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민 또한 국적 크루즈선 취항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학도부두는 크루즈 전용부두로

개발하는 데 손색이 없으며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주변여건 또한 우수하고 목포시의 개발의지도 강하다”며 전용부두 개발을 건의했다.

목포상의는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목포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삼학도 크루즈 부두 건설과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목포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황주홍 의원을 초청해 ‘해양산업을 키워 국제도시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광주시 비서실장에 박용수 전 CBS총괄상무 내정

광주시 비서실장에 박용수(58) 전 CBS총괄상무가 내정됐다.

광주시는 11일 “한 달여간 공석인 시장 비서실장에 박 전 상무를 내정하고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이번 주 중 신임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박 내정자가 CBS기자와 앵커 출신 방송 경영인으로 폭넓은 언론활동을 통해 형성된 균형된 시각과 정무감각, 업무추진력, 조직관리 경험 등을 겸비하고 있어 비서실장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 내정자는 윤장현 시장과 80년대 이후 광주시민연대, 광주YMCA 활동과정에서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진도 출신으로 목포고와 전남대, 광주대 언론대학원을 거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소셜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프랜차이즈 개발회사 / 2015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학교 운영기관 / 2015 조선이공대 외식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기관 www.startbiz.co.kr

탄탄한 광주, 전남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고 싶다면??

시스템구축에서 가맹점모집까지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조계현소장의 23년 노하우를 활용하십시오!

☐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도 역시! 예비창업자의 안전창업을 위한 12단계 리스크 필터링시스템 자체개발!

프랜차이즈 컨설팅	창업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지역특화사업 컨설팅
<p>신규 또는 운영중인 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원한다면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이용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 아이템개발 및 보완 ■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운영전략 수립 ■ 프랜차이즈 홍보마케팅 	<p>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창업자는 안전창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 아이템 분석 및 점포개발 ■ 메뉴(상품, 서비스)전략구성 ■ 차별화 운영전략 및 홍보마케팅 	<p>운영중인 업체가 매출이 부진하다면 경영개선 컨설팅을 이용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진단 및 대안전략 수립 ■ 메뉴개발 및 보완 인테리어 리모델링 ■ 원가절감 및 매출강화 ■ 직원교육 및 홍보마케팅 	<p>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다면 지역특화사업 컨설팅을 이용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6차산업 컨설팅 ■ 정부 공모사업 컨설팅 ■ 문화관광 체험상품 개발 ■ 지역특화상품 연구, 개발 ■ 협동조합, 농업법인 컨설팅

조계현 소장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일보 창업칼럼니스트
조선대학교 자치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신학협동연구원 이사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사)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자문위원
(사)광주전남프랜차이즈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이제는 광주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창업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The small enterprise establishment strategy institute
부설 | 세종외식산업연구원

광주, 전남권 창업中心 -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885-7 승림빌딩 2F

상담 대표전화
062) 515-0300